

광주 서구 백석산 마륵근린공원 ‘시민 품으로’

민자 940억 투입 17만여㎡ 명품 숲공원
3.7km 맨발길·모험놀이장·피크닉장 갖춰

광주시는 서구 백석산 일원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마륵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지난 21일 개장했다. ‘마륵근린공원’은 공원 지정이 자동 소멸될 우려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광주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2017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부지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부지 전체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사업이다. 마륵근린공원은 토지매입비, 공원공사비 등 총 940억원(잠정 집계)을 시비 투입 없이 전액 민간자본으로 완성했다. 약 17만7천㎡(축구장 약 25개)에 이르는 산림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켜 시민들에게는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숲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광주 서구 백석산 일원에서 열린 ‘마륵근린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관계자 등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3.7km에 이르는 산책길은 일반 코스로도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전용 맨발길도 함께 조성됐다. 이 맨발길은 광주에서 가장 긴 구간이다. 이와 함께 산책길 곳곳에 의자와 세족장, 운동기구, 파고라 등을 배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더

욱 높였다. 초·중학생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시민들을 위한 발물놀이터(물놀이장), 모험놀이장, 피크닉장 등도 설치해 다양한 연령과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층 규모의 주차복합건물을 건립해 1·2층은 총 11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3층은 문화 강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이들 시설은 지역 주민과 광주시, 자치구, 시공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열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강기정 시장은 “마륵근린공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여유를 위한 명소가 될 것”이라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도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2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나머지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들이 푸르른 도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수희 기자

전남도 자활사업 빛났다…복지부 평가 두각

최우수 해남군 포함 8곳 우수 등급
곡성군은 지역특화사업 우수기관

전남도는 23일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 해남군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전남 8개 센터가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우수 등급을 획득한 지역자활센터는 해남군을 포함해 나주시, 광양시, 화순군, 담양군, 함평군, 완도군, 신안군 등 8개 지역자활센터다. 여기에 곡성군이 지역특화사업 분야에서 우

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센터가 선정됐다.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한 성과 평가는 2023~2024년 사업 실적에 대해 참여자 자활역량 증진, 사업단 운영 성과, 자활기업 활성화, 센터 운영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협력 활성화 등 총 16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우수 기관에는 2천만원, 우수 기관은 1천500만원, 지역특화사업 우수 기관은 7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역

할을 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만든 결과”라며 “자활근로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도민 자립 의지를 실현하는 전남형 자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자활센터 23개소에 420여원을 들여 3천400여명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자활사업 품질 향상과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해 시·군과 센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활·자립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도시철도 2호선 백운교차로 내달 22일까지 부분 통제

광주시, 우회도로·대중교통 이용 당부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3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공사로 인해 오는 25일부터 12월22일까지 남구 대남대로 주월교차로~백운교차로 280m 구간 도로 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제에 의해 기존 편도 3·4차로가 편도 2·3차로로 줄어든다.

이 구간에서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대남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복곡판 지지대 제거 작업을 앞두고 폭 10m의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부분 통제를 결정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안내 표지판·플래카드 설치, 월산마을·미래아동병원 신호수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차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에게 우회도로·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통제 구간 차량 우회도로는 ▲농성교차로에서 백운광장 방향→월산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양궁장 방향 ▲광주대에서 백운광장→호반힐 하입 교차로에서 양궁장 방향 ▲남광주(봉산·방림)에서 백운광장→미래아동병원 교차로에서 기독병원(수피아여고) 방향 ▲봉선동에서 백운광장 방향→대화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봉선중앙로(봉선초교) 방향 등이다. /기수희 기자

1박2일 미식상품 ‘게미진 광주’ 눈길

시 ‘김치벨트’ 선정 계기 특화코스 강화
김치담그기·장보기 등 체류형 관광상품

광주시는 1박2일 체류형 미식 관광상품인 ‘김치가 예술인 게미진 광주여행’ 출시(12월 5일)를 앞두고 지난 20~21일 이틀간 미식·여행 전문가를 초청해 사전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 관광상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추진하는 ‘K-미식벨트 조성사업’에서 광주시가 김치벨트지역으로 선정돼 개발한 특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선보인 당일형 상품이 호응을 얻으면서 이번에 1박2일형 상품을 추가로 선보이는 것이다. 1박2일형 코스는 기존 당일형 코스인 광주김치타운(김치 담그기), 양동시장(장보기), 양림역사문화마을에 더해 광주시 제1호 지방정원인 광주호호수생태원을 추가, 체류형 체험을 강화했다. 특히 당일형 상품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김치박물관 관람, 시장 맛집 탐방, 여행객이 상황극에 직접 참여하며 양림동을 걸어 체험하는 연극형 도보투어 등 각 장소에서 충분히 체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했다. 사전 팸투어에는 광주시,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광주관광공사 관계자와 미식·여행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새롭게 구성된 코스의 현장 운영과 체험 요소를 점검, 코스 개선 및 상품 홍보 방안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상품 운영은 12월까지이며, 예약은 로망스투어(www.romancetour.co.kr)와 흥익여행사(www.kxttour.co.kr)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게미진 광주 김치의 깊은 맛과 광주만의 미식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박2일형 상품 도입으로 관광객 체류 시간이 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365일 관리

✓가족구성 가능

✓사용기한 없음

✓전문 이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CMYK